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도신경
찬 송

.....
..... 304장

다함께
다함께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 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사 하셨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 도
성경봉독

.....
..... 요한복음 8:2~11

말은이
다함께

²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
을 가르치시더니 ³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⁴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
장에서 잡혔나이다 ⁵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
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⁶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
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⁷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⁸다시 몸을 굽혀 손가
락으로 땅에 쓰시니 ⁹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
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
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¹⁰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¹¹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Ⅰ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2025. 6. 15. 주일예배 설교

“종교가 가진 함정, 이분법적 세계관”

종교의 함정은, ‘나는 절대로 옳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 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교리적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옳고 그름, 이 두 가지로만 구분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은행 중에 잡힌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무리들 앞에 세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했겠습니까. 그 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7절). 그러자, 조금 전까지도 서슬 퍼렇게 죄 지은 여자를 몰아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어느 누구도 먼저 돌을 들지 못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 역시,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 이 여자처럼 생각과 마음, 행동의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옳고 그름, 단순히 이 두 가지로만 구분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

성도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곧,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라는 것을 정직히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자신들이 훨씬 악하고 약하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마음에 쓴 뿌리가 올라옵니다(히 12:15).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죄 지은 여자에게처럼 조금의 긍휼과 자비도 베풀 수 없고, 오히려 상대를 더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베풀 수도,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생명을 살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래야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참회보다도 먼저, 품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이곳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마음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걷어내 주시고, 한없이 따뜻하고 긍휼 넘치는 눈빛과,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아시기에 뿔어 나오는 이해와 동정의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11절).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먼저 우리의 자백과 참회가 있어야 용서가 따른다 말씀합니다(요일 1:9). 그런데 이 여자는 분명, 먼저 자백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녀에게 용서와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은 어떤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온갖 멸시와 수모로 이미 받아야할 벌을 다 받은 것과 다름없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기계적이거나 법률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녀를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 이처럼 신앙은 어떤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혜)을 경험하게 될 때”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1절). 단언컨대 이 여자는 이 사건 이후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 안에서, 그동안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힘으로부터 놓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녀의 행위, 즉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된 죄의 힘을 보셨던 것입니다. 은혜는 죄의 힘을 걷어냅니다.

은혜의 형질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여자는 이제, 이전처럼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다른 남자한테 달려갈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온 영혼으로 경험하면서, 그 허전했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요일 4:18).

※ 사랑(은혜)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랑은 죄의 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결론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 하고 있을 때,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은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옳고 그름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잠시 경고와 질서는 줄 수 있겠지만, 절대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훈은 이 여자를 구원했고, 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벌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스스로 죄를 멀리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 날이 왔다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양 떼 가운데서 염소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빛이 충분할 때도 아니요, 무화과와 사과나무를 구분할 수 있을 때도 아니다. 그 때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형제자매의 낮빛을 볼 수 있는 때이다. 그 때야말로 새날이 온 것이다.” 이어서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이러한 새 날 맞이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눔

- 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 중 잡힌 여자를 무리 중에 세우며, 그녀를 더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리낌 없는 행동을 한 데에는, 그들 안에 어떠한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인가요?(p.2)
- ②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는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도 먼저 돌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에게 있어 ‘스스로 죄 인임을 고백하는 삶’ 이 영적으로 왜 중요한 일입니까? 또한 이것을 나는 늘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 ③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각만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훈의 마음(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픈 대상이 있다면 적어보고, 구체적인 기도제목으로 나누어 봅시다.
- ④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